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에너지공사와 업무협약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제주에너지공사와 손잡고 제주 지역 재생에너지 전력설비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인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24일 제주에너지 공사(사장 최명동)와 '재생에너지 전력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생에너지 전력설비의 안전성 향상과 현장 기술지원 강화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성주 한국전 기안전공사 기술이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재생에너지 전력설비의 안전성을 높이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과 전문성을 공유하기로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설비 검사 등 현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기술을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력설비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진안군, 완주 서봉마을 태양광 현장 밀착 탐방

진안군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마을 공동체 사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 5월부터 총5차에 걸쳐 주민들의 에너지 자립 의식 고취와 사업 추진 능력 배양을 위해 '햇살팍 프로젝트'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해 왔다. 재생에너지 및 햇빛소득마을을 공모 사업에 관심 있는 진안군 주민 30여 명은 25일 태양광 발전 성공 모델인 전북 완주군 고산면 서봉마을을 찾았다. 이번 견학은 앞선 5차례의 이론 교육 성과를 극대화하고 현장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6차 교육이다. 발전 수익금이 마을 복지 재원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체계를 눈으로 확인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 26일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진행

남원시는 26일 전북혈액원과 협력하여 8월 '사랑의 헌혈'을 실시, 이동용 헌혈차량 4대를 활용해 시청광장(10:00~16:00), 농업기술센터(10:00~12:00), 보건소(13:30~16:00)에서 동시에 운영된다. 헌혈은 만 16세부터 69세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헌혈 전날에는 음주를 자제하고 최소 4시간 이상 숙면을 취해야 하며, 2식 이상 공복 상태에서는 헌혈이 제한되며, 당일에는 가벼운 아침을 식사하고 참여하는 것을 권장된다. 이번 헌혈에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남원사랑상품권 1만 원권과 함께, 전북혈액원에서 제공하는 기념품을 평소보다 2배로 늘려 증정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전은·유니세프 등과 '프로젝트 169 사업' 협약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위한 기본권 보장·안전적 성장 환경 만들기 '맞손'

남원시는 8월 25일, 유니세프, JB전북은행,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 169 사업'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원시장, 전북은행 부행장,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기업후원실장,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참석해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프로젝트 169'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16번째 목표인 '평화·정의·포용적 제도'의 9번째 세부 목표인 '모두에게 법적 신분을 제공하고 출생등록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출생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지원 대상은 남원 아동확인증을 발급받은 0~13세 아동과 그 가정으로, 대상 아동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양육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남원시는 남원아동확인증 발급·운영 및 사업 홍보를 지원하고,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사업 추진을 위한 기부금을 조성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사업 기획 및 운영관리와 교육·홍보를 담당하며,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지역사회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기금을 집행하는 등 대상 아동과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특히 프로젝트 169는 공공기관과 국제기구, 금융기관, 지역 전문기관이 각자의 역량을 모아 출생미등록 이주아동을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보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아동확인증 발급에 그치지 않고 의료비와 양육자 교육 등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양종모 남원시장은 "모든 아동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며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관계 기관이 더욱 촘촘하게 협력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국생활개선완주군연합회, '2026 비전 선포' 및 어울림 한마당

한국생활개선완주군연합회(회장 한숙화)가 25일 완주군 문화체육센터에서 회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비전 선포 및 어울림 한마당'을 열고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 갈 여성 리더로서의 포부를 다졌다. '리더의 지혜로, 행복한 농촌, 미래를 여는 완주군생활개선훈'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행사는 고교장구 식전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개회식에서는 지역 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현자 완주군생활개선훈 부회장이 완주군수상, 하영숙 동산면 회장이 완주군의회의장상, 이영자 화산면 회장이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상을 받았다. 이서면 부회장을 역임한 이미경 제10대 완주군의회 의원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김규성 완주군산업건설위원장, 유의식 새마을지도자완주군협의회장, 최장혁 완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행사의 핵심인 '2026 비전 선포식'을 진행해 행복한



농촌을 이끌어갈 미래지향적 가치와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외에도 각 읍면 생활개선훈장단 임장식과 완주군생활개선훈 활동 영상 시청, 생활개선훈가 제창 등을 함께하며 단합을 확인했다. 또한, 오후에는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정백전 어울림 체육행사와 읍면 대항 장기자랑, 풍성한 행운권 추첨 등이 진행돼 회원 간의 화합과 소통을 다지는 재충전의 시간으로 성황리 마무리됐다. /완주=염재복 기자



남원소방서, 가을철 벌 쏘임 주의보 발령

남원소방서는 최근 낮 최고 기온이 유지되고 벌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맞아 야외활동에서 벌 쏘임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오늘(24일) 오전 11시경 지리산 뱀사골 계곡 인근 산책로를 걷던 관광객 60대 부부 2명이 말벌 등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쏘인 직후 심한 오히려와 구토, 경련 등 아나필락시스 의심 증상을 보여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고 소방헬기를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 다행히 신속한 대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벌 쏘임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활동에 밝은색 옷 착용, 모자와 긴팔과 긴바지 착용, 향수, 화장품, 스프레이 등 강한 향을 내는 제품 사용 자제, 탄산음료나 달콤한 음료 섭취 주의 등이 필수적이며, 만약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손으로 저어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자리를 피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계절근로자 숙소 화재예방대책 가동

남원소방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대상으로 한 '화재예방대책'을 가동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 관내 공공형 숙소 7개소(금지면 상귀마을회관, 주생면 재천마을회관, 주천면 하주마을회관, 아영면 아곡·구지·청계·외인마을회관)를 대상으로 철저한 화재 안전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에서는 소방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했으며, 재난 발생 시 초기 대피요령에 대한 맞춤형 안전컨설팅을 병행했다. 이와 함께 6개 국어로 제작된 다국어 리플릿을 활용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도 실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소방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방문

고창소방서(서장 시주형)는 고창군 공음면 송동리에 소재한 중부권 농업인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방문해 생활환경 확인 등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시주형 고창소방서장과 예방안전팀 직원 2명, 고창군청 농업정책과 직원 1명이 함께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6개 언어로 작성된 '불나면 대피먼저'라는 팸플릿을 배부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요인을 설명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